



맛있는 시쓰기



다음 시를 맛있게 읽고 노래도 들어봅시다.

▶ YouTube 검색창에서 **떡볶이-정두리** Q를 검색해 보세요.

떡볶이

<정두리>

달콤하고 조금 매콤하고
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
그래도 호호거리며 먹고 싶어.

벌써 입속에 침이 고이는걸.
'맛있다'소리까지 함께 삼키면서
단짝끼리 오순도순 함께 먹고 싶어.





‘떡볶이’ 시에서 다음 표현을 찾아보세요.



떡볶이의
맛

달콤하고 조금 매콤하고

떡볶이를
먹는 모습

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/ 호호거리며

함께 먹고
싶은 사람

단짝끼리 오순도순 함께 먹고 싶어



‘시’는 무엇일까요?



1.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짧게 쓴 글
2. 시는 읽으면 노래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.
3. 자유롭게 쓴다.



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어요.



좋아 하는 음식을 떠올리며 다음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.

내가 좋아하는
음식은?



치킨

음식 맛은
어땠나요?

치킨은 바삭바삭
치킨무는 새콤달콤

음식 먹는 모습은
어땠나요?

양손에 닭다리
들고 와앙~
살만 쏙쏙
손가락에
반짝반짝 기름

누구와 함께
먹었나요?

가족들과
함께 오순도순



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던 경험을 '시'로 표현해 봅시다.

치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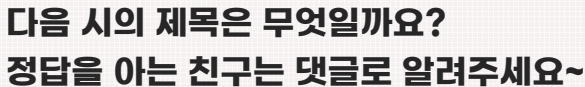
<이아무개>

닭다리는 바삭바삭
치킨무는 새콤달콤

양손에 닭다리 들고 와앙~
손가락이 반짝반짝
입술이 반짝반짝

살은 썩썩 빼는 쪽쪽
가족들과 오순도순 함께 먹고 싶어.





[]

달콤하고 오싹오싹 시원하고

[illegible]

그래도 자꾸만 먹고 싶어

벌써 입속에 침이 고이는 걸
'맛있다' 소리까지 함께 삼키면서
친구와 오순도순 함께 먹고 싶어

맛 : 달콤하고 오싹오싹 시원하고

모든 모습 : 이모저모 수모만

함께 먹고 싶은 사람 : 친구



나만의 '맛있는 시'를 **유튜브 '셋업TV'**나 **블로그**에
댓글로 소개해 주세요. 아주 짧은 시도 좋아요^^